



송후섭

‘데뷔전 악몽’ 6년차 신인 송후섭 “실패 보약 삼아 변화구 다듬었다”

KIA 제주도 마무리 캠프 0.1이닝 6실점 이후 마운드 못 올라 구속 향상되고 제구 잡히며 성장세 “내년 시즌 달라진 모습 보여주겠다”

야구 선수에게 프로 데뷔전은 특별한 순간이다. 야구 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무대지만 오랜 기다림이 악몽이 된 선수도 있다. (경기 영상) 딱 한 번 보고 민망해서 더는 못보겠더라면서 속스럽게 웃은 KIA 타이거즈 우완 송후섭. 그가 제주도 캠프에서 ‘진짜’ 무대를 꿈꾸고 있다. 2017년 개성고를 졸업하고 프로에 뛰어든 송후섭은 KIA 제주도 마무리 캠프 투수조 ‘최고참’이다. 그는 올 시즌 프로 6년 차에 기다렸던 순간을 맞았다. 9월 1일 엔트리 확대와 함께 처음 1군에 포함됐고, 이어 9일에는 1군 마운드에도 올랐다.

9월 9일 SSG와의 원정경기가 송후섭의 첫 무대였다. 16-0으로 크게 앞선 9회말 송후섭이 1군 데뷔전에 나섰다. 큰 점수 차에서 마운드에 올랐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다. 첫 상태 오테곤과 9구 승부 끝에 우전 안타를 맞았고, 안상현은 몸에 맞는 볼로 내보냈다. 그리고 볼넷으로 무사 만루에 몰린 송후섭은 2루 땅볼로 프로 첫 아웃카운트를 잡았지만 동시에 실점이 올라갔다. 이어 3연속 안타를 허용하면서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이어 나온 유승철도 고전하면서 송후섭의 프로 데뷔전 성적은 0.1이닝 4피안타 6실점으로 남았다. 다음 날 엔트리에서 탈락된 송후섭은 10월 8일 다시 1군 엔트리에 등록했지만 경기에는 나서지 못했다. 송후섭은 “1군 가서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5, 6년 피나는 노력하고 올라갔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긴장도 많이 했고 공만 빠르면 되는 줄 알고 직구로만 붙었다. 1군의 벽은 더 높다는 것을 느꼈다”며 “그래도 팬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것 보면서 위안 삼고 멘탈을 잡았다”고 이야기했다. 송후섭은 쓴 실패를 보약 삼아 다음 무대를 그리고 있다. ‘변화구’가 가장 송후섭이 신경 쓰는 무기다.

송후섭은 “회전수 증가를 위해 많이 연습하고 있다. 하체로 많이 던지는 느낌으로 하고 있다”며 “두 번은 그런 실수 안 하기 위해서 변화구 연습도 많이 하고 있다. 확실한 변화구가 없는 것 같아서 저녁마다 찾아보고 코치님들에게 여쭙고 배워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쉬움 가득한 데뷔전이었지만 올 시즌은 송후섭에게는 잊지 못할 해다. 최근 2군 감독으로 선임된 손승락 코치네이터를 중심으로 투수들 피칭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송후섭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줬다. 송후섭은 “팀에 온 지 벌써 6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다. 올 시즌 구단에서 많이 지원해주셔서 구속이 향상됐고, 제구도 더 잡혔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기회를 주신 것 같다. 내년이 중요한 해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마무리 캠프가 상상 이상으로 힘들기는 하다. 처음 캠프에서 최고참이 됐는데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고, 부족한 게 많아서 신인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고 왔다”며 “이번 캠프 때 부족한 것 확실히 보완해서 내년에는 달라진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FA 시장 열렸다...KIA 포수 박동원 잔류 여부 관심

고종욱 등 40명 자격 명단 공시 17일부터 계약 교섭활동 시작 KIA, 키움 포수 주효상도 영입

KBO가 13일 2023년 FA 자격 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2023년 FA 자격 선수는 총 40명으로 등급별로는 A 등급 11명, B 등급 14명, C 등급 15명이다. 처음 FA 자격을 얻은 선수가 29명이며, 재자격 선수는 7명이다. 앞서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는 4명이다. 구단별로는 NC가 8명(심정만·이재학·원종현·노진혁·박민우·권희동·이명기·양의지)으로 가장 많고, SSG 6명(박종훈·이태양·오테곤·한우섭·이재민·최정), LG(김진성·임찬규·유강남·채은성·서건창)·KT(전유수·신본기·심우준·안영명·박경수)·삼성(김대우·김현곤·구자욱·오선진·김상수)

이 5명, 두산(임정민·박세혁·장원준·이현승) 4명, 키움(정찬헌·한현희) 2명, 롯데(강윤구·한화(장시환)가 각각 1명씩이다. KIA에서는 포수 박동원, 외야수 고종욱과 나자완 등 3명으로, 나자완은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했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15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KBO는 16일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할 예정이다. FA 승인 선수는 17일부터 해외 구단 포함 모든 구단과 선수 계약을 위한 교섭 활동을 할 수 있다. KIA의 시선은 역시 박동원의 잔류 여부 등 ‘포수’ 자리에 쏠린다. KIA는 올 시즌 포수 자원에 대한 세 차례 트레이드를 진행했다. 먼저 지난 4월 키움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소문이 무성했던 박동원을 영입했다. 대신 KIA는 내야수 김태진과 현금 10억원, 2023년 신인 2라운드 지명권을 키움에 내줬다.

5월에는 포수 김민식을 SSG에 내주고 좌완 김정민과 우타 거포인 내야수 임석진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지난 11일에는 키움에 2024년 신인 2라운드 지명권을 내주고 포수 주효상을 데려왔다. 서울고 출신의 주효상은 지난 2016년 1차 지명을 받고 넥센에 입단한 프로 7년 차다. 프로 통산 5시즌 동안 237경기에서 나와 73안타(2홈런) 타율 0.203, 36타점 31득점 OPS 0.546을 기록했다. 주효상은 현역 복무를 마친 뒤 최근 전역한 ‘예비역’이다. KIA는 다년 계약 등을 제시하며 박동원 잔류에 공을 들였지만, 일단 박동원은 FA 시장에서 가치를 평가받겠다는 입장이다. 포수 자원의 가치 상승 등으로 쉽지 않은 협상이 예상되는 만큼 KIA는 선수층 강화 차원과 보험 차원에서 주효상을 영입하는 등 다각도로 스토브리그를 준비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AI페퍼스 박은서가 12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홈 경기에서 IBK 기업은행을 상대로 스파이크 하고 있다. 박은서는 서버 4득점 포함 13득점으로 이번 시즌 한 경기 개인 최다 득점했다. (KOVO 제공)

페퍼스 무승으로 시즌 1라운드 마감

광주 AI페퍼스가 무승으로 시즌 1라운드를 마감했다. AI페퍼스는 지난 12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홈 경기에서 IBK 기업은행에 세트 스코어 1-3(18-25, 20-25, 25-19, 21-25)으로 패했다. 페퍼스는 시즌 개막 후 이날까지 6연패를 당했다. 전패했으나 4개 팀을 상대로 5세트를 따내는 의미있는 기록을 남겼다. 이날 니아 리드(17점)와 이한비(13점) 쌍포의 활약에도 무릎을 꿇었다. 박은서는 서버 4득점 포함 13득점을 뽑아내 이번 시즌 한 경기 개인 최다 득점했다. 지난 시즌 페퍼스에게 창단 첫 승을 안기는 등 2승을 헌납했던 기업은행은 예전의 팀이 아니었다. 페퍼스는 1세트 초반 3-4에서 기업은행 표승주에게 연달아 점수를 내주고 육서영의 스파이크 서버에 고전하며 스코어가 6-9로 벌어진 뒤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페퍼스 득점원인 최가은(3점), 리아 리드(3점), 박경현(3점)이 9점에 그

친 반면 표승주와 육서영은 각각 6점과 5점 등 11점을 합작했다. 공격성공률 27.03%에 그친 페퍼스가 44.74%를 기록한 기업은행에 완패한 세트였다. 2세트는 결정적인 서버 범실에 발목을 잡혔다. 6-9로 추격하는 상황에서 박경현의 서버 범실로 흐름을 놓쳤다. 10-13으로 또다시 격차를 좁혔으나 이한비의 서버 범실에 발목을 잡혔다. 14-16으로 바짝 추격했으나 이번에는 리아 리드의 서버 범실이 불거졌다. AI 페퍼스는 3세트를 극적으로 따내며 홈팬들에게 기대감을 안겼다. 서버 에이스 4개를 몰아치며 5점을 뽑아낸 박은서의 맹활약을 토대로 니아 리드, 이한비 쌍포가 10점을 합작, 기울어가는 승부의 물줄기를 돌려세웠다. 4세트는 서채원의 오픈 공격 성공으로 20-22까지 따라붙은 뒤 기업은행 김수지의 속공을 허용한 뒤 다시 니아 리드의 백어택으로 응수, 21-23으로 추격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김희진의 속공을 견제하지 못해 결정적인 승기를 빼앗겼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영암군민속씨름단 ‘천하장사 호령’

최정만 금강장사 등극... ‘루키’ 차민수 한라장사에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위더스제약 2022 천하장사 씨름대축제’에서 금강·한라장사를 배출했다. 최정만은 ‘위더스제약 2022 천하장사 씨름대축제’에서 금강장사(90kg 이하)에 등극했다. 최정만은 11일 울주군 작전정운동장 씨름 특성 경기장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2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금강장사(90kg 이하) 결정전(5전 3승제)에서 김민정(영월군청)을 3-0으로 꺾었다. 이로써 최정만은 6월 단오 대회에 이어 시즌 2관왕에 오르며 개인 통산 15번째 금강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8강에서 이철빈(태안군청), 4강에서 문형석(수원특례시청)을 모두 2-0으로 제압한 그는 결승에서도 상대에 점수를 내주지 않았다. 첫판 거침없는 잡채기로 김민정을 쓰러뜨린 최정만은 들배지기와 잡채기를 연달아 성공시켜 우

승을 확정했다. 차민수는 지난 10일 같은 대회 한라장사 결정전(5전 3승제)에서 김무호(울주군청)를 3-0으로 제압했다. 동아대학교를 중퇴하고 올해 실업 무대를 밟은 차민수가 한라장사에 오른 건 올해 3월 장흥 대회와 지난달 안산 김홍도 대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8강에서 최정훈(태안군청)을 2-0으로 눌린 그는 4강에선 우승 후보이자 같은 팀 동료인 오창록까지 2-1로 눌렀다. 기세가 오른 차민수는 결승에서도 거침없이 점수를 따냈다. 첫판 발다리걸기로 김무호를 쓰러뜨렸고, 뒤이어 잡채기와 들배지기까지 성공해 우승을 확정했다. 허성현은 12일 같은 대회 태백장사 결정전(5전 3승제)에서 노병수에 2-3으로 져 2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위더스제약 천하장사씨름대축제’ 금강장사에 등극한 영암군민속씨름단 최정만(왼쪽)과 한라장사에 오른 차민수.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리멤버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인생은 아름다워
2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인생은 아름다워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덕일학교, 리멤버
3관 자백, 내 친한 친구의 아침식사	7관 씨네커플
4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덕일학교, 리멤버
5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8관 씨네커플
6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자백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인생은 아름다워, 블랙 아담
9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첫번째 아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⑥ **뷰에르 앙상블**
일시: 2022. 11. 21.(월) 19:30
장소: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062-613-8235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37회 정기공연 영아오페라 시리즈 1 **피노키오**
일시: 2022. 12. 2.(금) 19:30
2022. 12. 3.(토) 15:00 / 19:00
장소: 빛고을시립문화관
문의: 062-613-8246